



로템나무그늘교회

- 2022. 01. 02 성탄절 후 두번째 주일
- 오전 11시
- 친구사이 사정전 / 온라인 ZOOM

예배의 부름
(사회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고백
(다같이)

[로덴나무그늘교회 신앙고백문]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찬양
(다 같이)

사랑이 이기네

이지음

F C Bb F Dm C Bb
은혜로 열 - 린 생명의 길 - 그 누구도 - 막을수 없 는 사 - 랑 -
우리가 아 - 직 죄인 일 때 - 그 가 먼저 - 우릴사 랑 하 셧 - 네 -

Gm7 C /Bb Am7 Dm
자 격 이 없 - 는 우 리 - 들 이 값 없 이 얻 - 을 수 있 - 도 록 념
우 리 가 주 - 와 함 께 - 살 고 주 께 서 우 - 리 안 에 - 사 신 이

1. Db Maj7 Bbm7 Csus C 2. Eb Bb C
쳐 나 - 는 - 새 로 운 - 생 명 놀 라 운 - 새 로 운 - 생 명

Dm Bb G7/B C
어떠한 차 - 별도 없 - 이 - 받은 은 - 혜 로 - 어 땀 게 차 별하 - 겠 나

Dm Bb G7/B C
무조건 용 - 서 해주 - 신 - 그사 랑 - 처 럼 - 우리 도 사 랑하 - 리 - 라 사랑하

F /A Bb Gm7 Eb add9 Bb C A7/C#
- 세 - 사 랑 이 이 기네 - 모든 차 별과 - 미워 - 함은 - 우리 것 이아 - 니네 - 사 랑하

Dm /C Bb add9 F/A 3 Gm7 Bb/C F Fine
- 세 - 사 랑 이 이 기네 - 우리 를 사 랑한 - 사랑 - 으로 -

F /A Bb Gm7 Eb add9 Bb C A7/C#
자비를 베풀 - 푸는 것 - 이 심판을 이기 - 네 행함이 없 - 는 믿음 - 은 죽은 것이니 -

Dm /C Bb F/A 3 Gm7 Bb/C F D.S.
차이로 가 - 르는 차 - 별 은 - 사랑을 죽 - 이는 것 - 미워함 으론 사랑을 말 - 할 수 없 네 - 사랑하

대표기도

- 쌤님 -

[사무엘상 20장 1-42절]

성서봉독

1. 다윗이 라마의 나뭇에서 빠져 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2.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3.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 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4.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 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5.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6.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시거든, 그 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 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7. 그 때에 자네의 아버님이 잘 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8.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9.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 주지 않겠는가?”

10.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 주겠는가?”

11.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12.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13.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14. 그 대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15.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 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 주게.”

16.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17.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18.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걸세.

19.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 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20. 그러면 내가, 연습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세 번 쏠게네.

21.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 때에 내가 그 종에게 큰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 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22.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23.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24.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25.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26. 그런데도 그 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27.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날 곧 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든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28.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29.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 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30.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네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31.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 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32.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33.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34.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달의 이틀째가 되던 그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35.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36.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 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37.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38.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39.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40.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41.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 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세 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42.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요한일서 4장 18절]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설교
(구현우 목사님)

“ #두려움 #벽 #사랑 #급진적 ”

헌금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정, 십일조, 선교, 건축, 사랑)

카카오뱅크 3333 21 9744006

축도

- 구현우 목사님 -

교회소식

1. 2022년 교회 표어는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입니다. 급진적인 사랑으로 모든 경계를 녹이를 녹이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 정부 거리두기 방침이 2주간 연장 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은 최대수용인원의 30%까지만 입장 가능하며,
오프라인 예배에는 21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 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헌금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체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약정헌금 하시는 분들도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카카오뱅크 3333 21 9744006 (ㄱㅅ즈)

4. 예배 이후 새가족부 모임과 말씀나눔이 잠깐 있습니다.

참여하신 이후 식사 및 교제는 4인 이하에 맞춰서 개별적으
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새롭게 개편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니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운영위원회에 연락주시
길 바랍니다.

5. 영어성경공부 모임이 매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운영위원에게 연락주시면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요모임은 현재 방학중이며 개편해서 조만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1월 생일자 안내

로마, 머머 (2일) 지앙 (4일) 꾸 (6일)